

18번홀 버디만 했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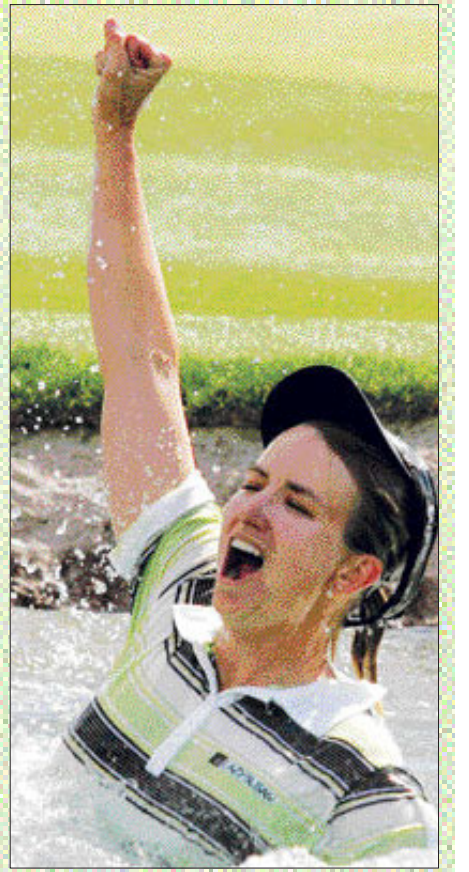
위성미, 이글 찬스 무위 버디마저 놓쳐

'샷은 완벽에 가깝다. 그러나 우승하려면 필요한 2%가 부족하다.'
 프로 전향 이후 처음 맞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보인 위성미의 플레이는 한마디로 눈부셨다.
 이번 대회에서 추로 3번 우드를 쓰고도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가 268.1야드에 이르렀고 페어웨이 안착률 62.5%, 그린 적중률 83.3% 등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볼을 치는 데 발군의 실력이었다.
 그린 적중시 홀당 퍼팅수는 1.85개로 아직 미흡했지만 전반적으로 퍼트 실력도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승컵을 거머쥐는데 꼭 필요한 '한방'이 없었다. 특히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위성미는 300야드의 장타를 정확하

게 페어웨이 한 가운데에 떨어뜨려 핀까지 185야드를 남겨 아이언으로도 충분히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위치였다.
 정확도가 높은 미들 아이언을 빼들 위성미에게 '최소한 버디로 연장' 또는 '멋진 이글 퍼트로 1타차 우승'이라는 시나리오가 절로 떠오르는 순간.
 5번 아이언으로 친 두번째 샷이 그린에 떨어져 구르다 그린을 살짝 넘어갔지만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7.6m 거리에서는 여전한 이글 기회도 살아있었고 손쉬운 버디 사냥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위성미의 칩샷은 홀을 지나쳐 3m 나 굴러내려갔다. 버디 기회도 불이 홀 언저리를 살짝 스치며 사라졌고 우승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 아쉬운 3위
 카리웹 연장서 우승

위성미가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힐스골프장(파 72·6천460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나비스코 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우승상금 27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를 묶어 2안타와 70타를 쳐 공동 3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카리 웹(호주)과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1타 뒤진 4라운드 함께 8안타와 280타로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한 채 나탈리 걸비스(미국)와 함께 3위로 경기를 끝냈다.
 우승컵은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뽑아낸 웹에게 돌아갔다.
 /최재호 기자lion@kwangju.co.kr



호주의 카리 웹이 3일 열린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18번홀 그린 옆 언덕에 뛰어들어 환호하고 있다.

안현수·진선유 남녀 종합 1위

안-대회4연패, 진-2연패
 세계쇼트트랙선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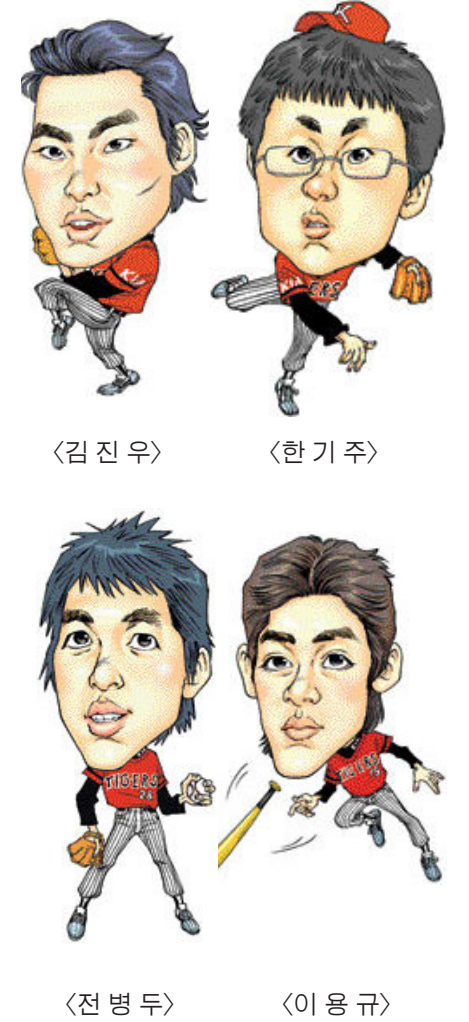
한국 남녀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안현수(21·한국체대)와 진선유(19·광문고)가 2006 국제빙상연맹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남녀부 동반 종합 1위의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안현수는 지난 2003년 대회부터 남자부 4연패를, 진선유는 지난해에 이어 여자부 2연패를 달성하면서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과시했다.
 안현수는 3일(한국시간) 새벽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매리우치 아레나에서 치러진 대회 마지막날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7초631로 결승선을 통과해 대표팀 '라이벌' 이호석(경희대)을 0.233초 앞서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안현수는 이어 열린 남자 3,000m 슈퍼파이널과 5,000m 계주에서 잇단 실격의 악몽을 겪으면서 더 이상 금메달 사냥을 이어가지 못했다.
 안현수는 남자 3,000m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호석을 제치는 과정에서 임페팅(밀치기) 반칙을 선언받아 실격처리됐고, 이호석



3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여자 1000m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진선유가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고 있다.

역시 안현수에 밀려 넘어지면서 금메달을 모두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남자 계주에서도 이호석이 막판 투지를 발휘해 캐나다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지만 추월할 때 있었던 접촉으로 인해 실격 처리돼 고개를 떨구었다.
 안현수는 두 차례 실격에도 남자 1,500m와 1,000m 우승을 발판으로 개인총점 68점으로 이호석(60점)과 나란히 개인종합 1.2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진선유의 독주가 빛났다.
 대회 첫날 여자 1,500m 금메달을 따냈던 진선유는 이날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2초767를 기록, '라이벌' 왕명(중국·1분32초874)을 0.107초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 나선 진선유는 다시 한번 왕명을 제치고 5분33초694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금메달 잔치를 마쳤다. 진선유는 3,000m 계주에도 나섰지만 코너를 돌다 미끄러지면서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러나 진선유는 총점 102점으로 왕명(97점)을 5점차로 따돌리고 개인종합 1위에 올라 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최재호 기자lion@kwangju.co.kr

기아 스타들 캐릭터



위성미가 3일 열린 LPGA 나비스코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18번홀 그린에서 버디퍼트를 놓친후 아쉬워 하고 있다. 위성미는 이 1타를 놓쳐 우승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당선확신!!

선거정보포털
 선거정보, 선거결과, 원고작성, 유세지원, TV광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TEL: 061-626-6523-4 FAX: 017-603-6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사무실
 연우개발 행정관리사무소 119(11-471-3100) 119(11-471-3100) 119(11-471-3100)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TEL: (061)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1위품질로 알려진 **삼우상사**
 TEL: 18001278-4242 FAX: 232-6262 624-6262